

중국 전자산업의 구조조정진흥계획

중국은 금융위기 속에서 전자정보산업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산산업이라는 인식하에 2009년 2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구조조정진흥계획을 통과시켰다. 산업연구원의 중국산업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진흥계획은 11차 5개년 계획 등 관련 정책들의 차질 없는 시행뿐 아니라 평면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정보산업 응용을 위한 공업부문과의 접목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집적회로 세대교체, 신형디스플레이 및 TV산업의 구조고도화, 제3세대 이동통신산업의 도약, 디지털 TV의 확산, 컴퓨터의 세대교체와 차세대 인터넷망 응용, 소프트웨어와 정보화서비스 육성 등 6대 중대 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무원 전자정보산업의 구조조정진흥계획 통과

중국 전자정보산업의 구조조정진흥계획의 개요를 살펴보면, 자동차, 철강, 방직, 설비제조, 조선 등의 산업진흥계획에 이어 전자정보산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진흥계획을 통과시켰다. 회의에서는 전자정보산업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초적, 선도적

기간산업임을 강조하였다.

현재 국제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하락하고 전세계적으로 전자정보산업이 심각한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중국도 전자정보산업을 진흥시키고 자주혁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 발전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보화, 공업화 추세를 융합하고 중대 프로젝트에 힘을 집중시켜 기술 돌파를 실현하고 이를 응용하여 산업 발전을 추진한다.





3년간 3대 중점업무

3년간 전자정보산업의 3대 중점 임무로 산업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요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며 컴퓨터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자부품산업 업그레이드를 가속화시키며, 멀티미디어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둘째, 자주혁신체제를 확립하고 주요 기술영역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며 자주적으로 통제가능한 집적회로 산업체계를 세우는데 주력하고 신형 디스플레이산업이 직면한 병목을 돌파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자주혁신능력을 제고시킨다.

응용분야의 발전을 통해 업무혁신, 서비스모델 혁신을 촉진시키고, 사회 각 영역에서 정보화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며, 통신설비, 정보화서비스, 정보화 기술응용 등 영역에 집중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도출한다.

임무 수행 6가지 조치

내수 촉진정책을 채택하고 전자정보산업 제품의

응용과 산업 발전 공간을 확장한다. 투자를 확대하여 집적회로 생산시설 세대교체, 신형 디스플레이 및 TV산업의 구조고도화, 제3세대 이동통신산업으로의 도약, 디지털TV 확산, 컴퓨터의 세대교체 및 차세대 인터넷망 응용, 소프트웨어 및 정보화 서비스 등 6대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사회 각 부문의 자금이 전자정보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주혁신 능력을 건설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된 국가과학기술 핵심 프로젝트를 조속히 시행하며 경쟁력 우위기업의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공공기술 서비스 플랫폼을 완성시킨다. 서비스 아우소싱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연구개발, 생산시설, 마케팅 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 산업 발전 정책의 집행역량을 강화하면서 디지털TV 관련

산업정책을 조속히 채택하고 3망융합을 추진하고 하이테크기업의 인증 목록과 기준을 조정한다.

전자정보산업제품의 수출환급 세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수출 신용대출, 수출신용보험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실시하며, 중소기업 집단채권 발행 시범지역을 확대한다.

6대 프로젝트 내용

집적회로 세대교체로 집적회로산업의 기술수준 향상과 생산능력 확대를 지원하고 12인치 웨이퍼 가공공장 설립과 나노미터공정 생산라인을 도입한다. 신형디스플레이와 TV산업의 구조고도화로 주요 기업으로 하여금 6세대 라인 이상의 LCD 생산라인을 설립하게 지원하고 평판 디스플레이산업과 컬러TV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실시한다.

제3세대 이동통신산업의 도약으로 차세대 이동통신을 완비한다. 디지털TV의 확산으로 디지털TV 관련 응용분야 및 산업체인을 확대하고, 자체적인 표준에 기반한 디지털TV 서비스 플랫폼을 완성하며, 국가디지털TV 응용 엔지니어링센터를 설립한다. 컴퓨터의 세대 교체와 차세대 인터넷망 응용이다. 소프트웨어와 정보화서비스 육성으로 정부 국산 소프트웨어의 대체 정책을 실행한다.

실행정책 조치

6대 중대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정책 조치로는 재정 투입의 강도를 강화한다. 소프트웨어, 집적회로산

업을 장려하는 후속정책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 및 실시한다. 지원정책실행 기한을 계속 연장한다. 소프트웨어기업의 영업세를 면제한다. 컬러브라운관, 액정 등 주요 전자산업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 환급세율을 17%로 인상한다. 국내수요를 확대한다.

제3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차세대 인터넷망, 디지털TV 네트워크 건설을 추진하고 이 영역에 육천억 위안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관련 기업들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의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연히 이번 산업진흥정책이 산업 전반적으로 유리한 작용을 할 것이 틀림없지만 단기적으로는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듯하다.

중국 전자정보산업의 동향

중국 전자정보산업의 최근 동향을 보면, 중국경기가 양호하고 세계경기 또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추세 속에서 2007년까지 전자정보산업은 유래 없던 호황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2007년말부터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전자정보산업의 성장은 다른 산업의 평균 성장률을 밑돌기 시작했으며 산업의 경쟁우위가 많이 약화되는 국면이 형성되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 때문에 산업은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부가가치, 이윤, 투자액 등 3가지 지표 모두 저조한 현상을 나타내었다. 수출속도나 매출 신장이 전국공업의 평균성장 속도보다 더디게 나타났다.

중국산 구매 정책

중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해서 내수를 촉진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으로 이 정책의 수혜를 입는 기업들은 고속성장이 가능하고 외부 수요 하락으로 인한 비관적인 기대를 역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도 외부 환경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정보산업은 위안화 절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대표적인 산업이어서 지적재산권 바탕도 그다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의 저성장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자주혁신노력 강화

비록 중국 전자정보산업의 성장속도가 둔화되었지만, 정보화를 통해 공업화를 선도하는 핵심 산업영역으로서 정부가 명확한 지원의지를 보이고 있고, 전자정보산업 진흥계획은 각 영역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지원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컬러 브라운관이나 CRT 등 중요 전자수출상품에 대해서 수출환급세율을 17%까지 상승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투자에 의존하는 중대 프로젝트는 중국 국내 기업의 전자제품, 정보화시스템, 상관 서비스 등의 구매 비율을 높여서 중국 국내 기업이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흥계획은 기업이 자주적인 혁신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산업내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이고,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만이 전자정보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다가오는 다음 경기주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된다.

평판디스플레이산업 혜택

11차 5개년 계획에 비해 진흥계획에서 평판 디스플레이산업의 지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진흥계획에서 집적회로, 평판 디스플레이, 기초전자 부품산업 3가지 영역이 특별히 언급되었으며 이중 평판 디스플레이산업의 위상이 확실히 제고된 것이다.

평판 디스플레이산업이 11차 5개년 계획에서는 부품 산업 중 하나로 포함되었으나 진흥계획에서는 3대 중점산업 중 하나로 지정되었으며 단독으로 6대 중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동시에 평판 디스플레이산업은 하이테크 산업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으며, 컬러TV산업의 고도화와 맞물려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정책이 지향하는 바도 명확히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대형 평면 디스플레이 영역은 각종 재정세 수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징동팡, 다주

지광 등이 대표적 기업들이다.

컬러TV제조업체 장단기적인 긍정적 영향

컬러TV 제조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진흥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평판 디스플레이산업 발전과 컬러TV산업 구조 고도화가 장단기적으로 컬러TV 산업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단기적으로 정부가 재정 조세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컬러TV산업의 선도기업들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술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스크린 모듈생산라인 건설 등에 직접적으로 자금이 지원될 것이다.

후방 부품산업이 발전하고 시스템업체들의 비용이 하락하면 중국산 제품이 외국제품에 대항하기 훨씬 나아질 것이다. 하이신테크, 스완창흥, 셴캉지아, TCL 등이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다. 반도체 조명업체들도 진흥계획을 통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이 점진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거시경제 영향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정책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업체들이 이미 높은 세계상 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후 추가적인 세금 감면이 있을 가능성은 적다.

중국산 우선구매정책

이번 진흥계획은 중국산 구매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해서 내수를 촉진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으로 이 정책의 수혜를 입는 기업들은 고속성장이 가능하고 외부 수요 하락으로 인한 비관적인 기대를 역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진흥계획은 중국산 우선 구매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로 구매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자국 기업 중 기술수준은 높지만 어떤 이유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산업이 될 것이다. 통신산업에 대한 계획은 3세대 이동통신, 디지털TV 네트워크 등의 건설에 육천억 위안의 자금을 투자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채택된다면 중국 국산 설비상의 2년간 수익 증가는 확실해질 것이다.

경기회복 여부는 불확실

각 산업의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지만 투자자들이 미래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장세에서 확인되듯이 산업진흥계획이 발표된 후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장세가 근본적으로 회복되면 전체 산업의 유기적인 회복이 있어야 하며 각 산업에 리스크 관리능력이 뛰어난 종목들이 선택되될 것이다.

전자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은 앞으로 3년 산업계획이고 이에 제기된 목표와 정책은 이미 존재하는 프로젝트들의 통합 및 재확인이며, 장기적으로 실제 업계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